

부활, 엄연한 역사적 사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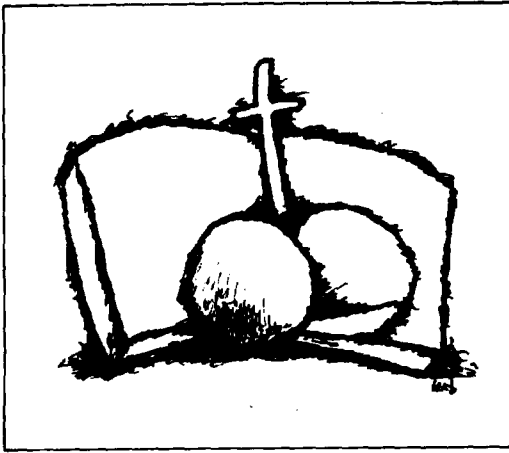
최 인 식

서울신학대학교 교수

에 수가 부활한 것이 과연 사실(事實)인가? 그렇다면 그 증거가 있는가? 이것은 오래 전부터 모든 그리스도인에게 주어지고 있는 물음입니다. 부활의 역사적 사실성을 부정하는 자들은 예나 오늘이나 다음과 같이 대답하기를 주저하지 않습니다. “일요일 아침, 천하에 울려퍼지는 교회의 종소리를 듣는다. 저것은 로마의 사형수인 나사렛 예수가 죽었다가 살아났다고 말했기 때문이다. 그러나 그 증거는 아무데도 없다”(니체). 예수의 부활 사건에 대한 이와같은 태도는 이미 부활을 첫번째로 목격한 막달라 마리아가 “예수를 따르던 사람들이 슬

퍼하며 울고 있는 곳으로 찾아가 이 소식을 전해 주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예수께서 살아 계시다는 것과 그 여자에게 나타나셨다는 말을 듣고도 믿으려 하지 않았다”(마 16: 10-11)고 했습니다.

엄연한 사실을 전달해 주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믿으려 하지 않는 것은 인간의 완고함 때문입니다. 심지어 예수를 ‘주님’이라 부르면서 따르던 제자들도 처음에는 믿지 못하였습니다. 마가복음은 “그 뒤 열한 제자가 음식을 먹고 있을 때에 예수께서 나타나셔서 마음이 완고하여도 무지 믿으려 하지 않는 그들을 꾸짖으셨다. 그들은 예수께서 살아나신



당시의 상황을 전해 주는 문헌이 신약성서 외에는 없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성서 안에 나타난 고백과 증언의 신빙성을 전제하는 자에게만이 성서는 의미있는 증거가 될 것입니다. 오늘날 부활사건을 인정하지 않는 자는 공통적으로 성서의 증언을 거부합니다. 그러므로 부활사건에 대한

것을 분명히 본 사람들의 말도 믿지 않았던 것이다”(16:14)고 보도합니다. 부활의 엄연한 역사적 사실에 대한 증거가 제시되었다고 다 예수 부활을 믿는 것은 아닌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나 바울이 말한 대로, “그리스도께서 다시 살아나지 않으셨다면 우리가 전한 것도 헛된 것이요 여러분의 믿음도 헛된 것일 수밖에 없을 것”(고전15:14)입니다. 다시 말해서, 그리스도인의 예수 신앙은 예수 부활의 사실성 및 확실성에 근거하지 않고서는 가능하지 못함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디에서 예수 부활의 사실성을 찾을 수 있을 것인가? 그 근거는 좋은 삶든 유일하게 성서에서만 찾을 수 있을 뿐입니다.

그리스도인의 과제는 분명해 집니다. 첫째는 성서가 보도해 주고 있는 사건의 증거를 밝히 알아 자신의 부활신앙이 역사적 사실에 기초해 있는 것임을 확신하는 것이요, 그리고 십자가와 부활의 증인이 되는 것입니다.

신약성서는 부활사건을 크게 두 측면으로 보도하고 있습니다. 곧 ‘빈 무덤’ 사건과 다시 사신 예수가 나타난 ‘현현(顯現)’사건입니다. 우리는 여기에서 지면 관계상 ‘빈 무덤’에 대한 논의만 다루도록 하겠습니다(‘예수의 현현’에 대해서는 필자의 글: “현대신학에서의 부활이해” 「목회와 신학」 '92. 4월호, 62-72 쪽 참조).

엄연한 역사적 사실인 부활은 성

서가 보도하는 대로 ‘빈 무덤’의 사건에 의하여 증거를 확보하고 있다는 것이 우리 논의의 핵심입니다. 그러나 오랫동안 ‘빈 무덤’의 역사성은 부정되어 왔으며, 부활신앙의 근거로서는 미약한 것으로 여겨져 왔습니다. 그것은 ‘신화’나, ‘전설’이니 하는 등의 이야기로 처리되어 버린 적이 많습니다. 이러한 일은 성서를 역사적으로 과학적으로 연구한다는 학자들을 통해서 더욱 강화되었습니다. 여기에서 우리는 ‘빈 무덤’의 역사성을 부정하는 학자들은 자신이 연구방법으로 사용한 ‘역사비평법’을 어느 정도 신뢰하며, 거기에 어느 정도 철저했는가를 물어야 할 것입니다. 이러한 물음은 오히려 비판적 연구를 하는 학자들 사이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이 분야에 대표적인 독일학자인 캄펜하우젠은 ‘부활사건의 과정과 빈 무덤’이란 저서에서 ‘빈 무덤’은 주석과 역사적 방법을 통해서 확고한 역사적 사실로 확정되어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빈 무덤’에 대한 가장 오래된 보도인 마가복음의 내용(16:1-8)은 다음과 같습니다. ‘막달라의 마리아, 야고보의 어머니 마리아 및 살로메란 세 여인이 안식일 다음날 이른

아침 해가 뜨자 안식일 전 날 아리마데 요셉이 예수의 시신을 안장한 돌무덤으로 향합니다. 위의 두 마리아는 당시 아리마데 요셉과 함께 있어서 무덤 현장을 목격한 바 있습니다. 예수의 시신에 향품을 발라 줌으로써 마지막 고별을 하려했던 것입니다. 무덤을 향해 가면서도 돌문을 어떻게 옮겨야 할 것인지 걱정이었습니다. 그런데 무덤에 도착해 보니 돌문은 이미 굴러져 있었고, 그래서 안에 들어가 보았는데 웬 흰 옷 입은 청년이 오른 편에 앉아 있는 것을 보고 질겁을 하게 됩니다. 그 때 청년은 예수의 시신이 놓였던 자리를 가리키면서 예수는 다시 사셔서 여기에 안계시고 제자들 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 계실 것이니 거기에서 만나게 될 것임을 전하라는 말을 들려 줍니다. 이 말을 듣고 난 세 여인은 두려워 하면서 무덤 밖으로 도망쳐 나옵니다. 이것이 이 ‘빈 무덤’사건의 전모입니다.

유대인에게는 장사 후 셋째 날에 무덤에 가서 가사상태를 보는 관습이 있습니다(A.Strobel). 그러므로 장사지낸 지 사흘째 되는 안식일 다음날 여인들이 무덤을 찾아 간 것은 아주 자연스러운 일인 것입니다. “

부활의 교리를 세워야 할 충분한 증거인으로도 보이지 않습니다. 단지 온전한 지본서의 감사의 정이 있을 뿐입니다. 그러므로 이런 소박한 여인들에게는 그들이 당한 사건이 나무의 역사기록에 게 얼마나 엄청난 일인지조차 알지 못하는 것입니다.

흰 옷 입은 한 청년”은 마태복음에 서는 “번개처럼 빛났고 옷은 눈같이 흰” “천사의 모습”(28:3)으로 표현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표현이 될 수 있었던 것은, 유대교에서 천사는 남성명사로 표시되었기 때문입니다. 향유를 바르러 온 여인들은 무덤에 온 그들의 목적과는 너무도 다른 광경을 접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무덤에 들어 간 처음 순간부터 그리고 무덤을 나와서 까지 겁에 질려 아무에게도 말을 못하고 있었 습니다. 바로 이러한 보도는 저들이 보고 듣고 느낀 대로인 것임을 독자는 즉각 감지할 수 있을 것입니다. 여기에서 누가 이것은 부활사건에 대한 인위적 조작일 수도 있지 않느냐라고 말한다면 그러한 불신 자체가 인위적이라 비판받아야 할 태도 일 것입니다.

그러나 ‘빈 무덤’의 사실을 고고학 적으로 밝혀 보려는 시도는 무모한 일입니다. 제자들은 그 현장을 보존 하는 일에 신경을 쓰지 않았기 때문

입니다. 만일 예수의 첫 제자들이 부활의 증거를 남기려 했다면 ‘빈 무덤’의 실제적인 자리를 확보하려는 노력을 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같은 노력이 보이지 않습니다. 그것은 이미 적대적인 유대인들에게 예수의 부활은 공인된 사실로 받아들여 진 상태였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유대인들이 ‘시체 도적설’을 효과 적으로 유포시키는데 많은 이야기를 만들어 내고 있었다는 사실을 미 루어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빈 무덤’의 보도를 접 하면서 거부할 수 없는 신선한 충격을 받게 됩니다. 여기에서 복음서 저자나 목격자들의 증언이나 모두가 ‘빈 무덤’을 이야기화 해서 부활 의 사실을 체계적으로 입증하려는 합리적 의도를 찾아 보기 어렵습니다. 그것은 처음 증인들이 경험한 기대 밖의 경악스러운 사건을 소박 솔직하게 전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마음이 여린 여인들, 그들에게 있어서 예수가 다시 살아나지 않으면 안

될 그러한 긴급한 사정이 있었던 것도 아니었습니다. 부활의 교리를 세워야 할 열렬한 종교인으로도 보이지 않습니다. 단지 은혜받은 자로서의 감사의 정이 있을 뿐입니다. 그러므로 이런 소박한 여인네들에게는 그들이 당한 사건이 나중의 역사가들에게 얼마나 엄청난 일인지조차 알지 못하는 것입니다. 여인들이 체험한 그 순간적인 '빈 무덤'사건에 대한 이같은 분장없는 보도야 말로 그 어떤 합리적 역사 서술보다 예수 부활의 사실성을 힘있게 증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빈 무덤'을 부활사건의 '증거'라고 말하는 것은, 그것이 소위 높은 개연성을 추구하는 것으로 만족해야 할 '역사학'에 의하여 검증되었기 때문이 아닙니다. 역사학적 분석은 아직 진행 중에 있습니다. 오히려 성서 자신이 독자에게 들려주는 사건내용의 진솔한 보고와 거부할 수 없는 권위 때문에 복음서의 증거가 참이라 믿게 되는 것입니다. 사실로써의 확인이 있었기에 믿음을 갖게 된 것이 아닙니다. '사실성의 확인'은 전달된 말씀에 대한 믿음의 푸토노트(각주)일 뿐입니다. '빈 무덤'이란 사실 자체가 부활을

가능케 한 것이 아니라, 부활이 실제적으로 이루어 짐으로써 '빈 무덤'이 있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즉 '빈 무덤'은 부활의 마지막 역사적인 흔적인 셈입니다.

오늘날 성서학계는 일방적으로 역사비평의 방법을 사용하는 것을 지양하여, 이를 충분히 활용하면서도 성서본문의 정경성을 존중해야 한다는 새로운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는 듯합니다(B. Childs, O. Betz 등). 그러나 우리 주변에는 여전히 여러가지 합리적 가설로 '빈 무덤'의 사실성을 부인하는 세력이 있음을 봅니다. 제자들이 로마 군병들을 돈으로 매수한 후 예수의 시신을 다른 곳으로 옮겨놓고 예루살렘 성내에 예수가 부활했다고 거짓말을 퍼뜨렸다는 '허위설', 새벽 미명에 세 여인들이 매우 흥분된 상태에서 다른 사람의 무덤에 갔다는 '무덤 오인설', 예수의 죽음은 가사(假死)적인 혼수상태였고, 옆구리의 창상은 일종의 찰과상이었고, 돌은 지진에 의하여 굴러갔다는 등의 '기절설', 제자들이 피곤한 상태에서, 그리고 예수가 죽을 분이 아니라는 강한 믿음 때문에 예수의 환상을 보고 부활했다고 하는 '환상설' 등 수 없는 부활

이 사실을 근거로 해서 예수의 부활을 고백하는 자는 누구든지 하나님의 나라의 능력을 경험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부정론이 형태를 바꾸어 가면서 존재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들의 공통점은 예수 부활사건에 대한 유일한 문언인 복음서의 내용을 충실하게 이해하려 하지 않고, 자신들의 가설에 상상력을 더하여 재구성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부정하더라도 우선은 성서본문에 철두철미해야 했을 것입니다.

끝으로, 엄연한 역사적 사실로서의 부활이 지니는 복음적 의미를 생각해 본다면, 그것은 하나님이 구원을 위한 가장 중대한 기초를 이 역사 한 가운데 놓으셨다는 사실입니다. 이 사실을 근거로 해서 예수의 부활을 고백하는 자는 누구든지 하나님의 나라의 능력을 경험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egeiro: 일으키다)을 네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얻으리라”(롬10:9) 하셨습니다. 구원의 역사는 부활의 신앙 없이는 불가능한 것이 되었습니다. 이것은 역사적 부활사건을 믿는 신앙을 기점으로 심판과 죽음 아래 있는 우주를 전혀 새로운 창조의

역사로 부르는 하나님의 행하심입니다. 부활하신 예수는 지금도 자신의 몸된 교회를 향하여 “온 세상을 두루 다니며 모든 사람에게 이 복음을 선포하여라”(막:16:15)고 말씀하십니다. 이제 누구든지 이 복음을 믿는 자들은 그 자신들의 역사적 삶에도 영생의 부활로 말미암은 ‘빈 무덤’이 따르게 됨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가 사는 이 세대의 정치, 종교, 도덕, 문화 등 전 삶의 영역은 진정 ‘빈 무덤’의 사건, 즉 죽은 자를 “일으키는” 사건, 그래서 죽은 자가 “일어나는”사건이 부활을 믿는 자들을 통하여 현재화 되기를 기다리고 있습니다(롬8:18-25 참고). 여기에 부활을 증언하는 그리스도인의 막중한 시대적 사명이 있습니다. **11**

